

# 광주·전남 때 이른 더위 감기·장염 등 환자 급증

연일 최고기록 ... 병·의원 환자 30~40% 늘어

광주·전남지역 최고 기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 이상 고온현상이 수 일째 이어지면서 감기나 장염, 장티푸스 등 열성질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주 들어 3월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기상 관측(193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9일은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24.9도로 평년 보다 11.5도나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이날 여수시(15도)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의 아침 최저기온도 3월 기온으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기상청은 20도를 웃도는 고온현상이 주말인 2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지역 병·의원과 소아전문병원

들에 따르면 이상 고온이 수일째 계속되면서 이번 주 들어 감기나 배탈 등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나 노인 등의 환자들이 30~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갑자기 10도 이상 급상승하면서 신체 리듬이 깨진 데다 잦은 황사와 큰 일교차 등으로 인해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더운 날씨로 인해 청량 음료를 마시는 어린이들이 늘고,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도 빈번해지면서 배탈이나 설사에 시달리는 소아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환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38.5도를 웃도는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합병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미래아동병원의 경우 평소 열성 질환 환자가 하루 평균 70명 내외였으나 이번 주 들어서는 40% 이상 증가한 100명선을 넘어서고 있다.

광주시 북구 일곡동 임성희소아과 등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주변 소아과에도 아침 이른 시각부터 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 환자들이 몰려드는 등 열성 환자가 지난 주에 비해 30% 가량 늘었다.

미래아동병원 김병희 원장은 “감기 등 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술 후 손발은 물론 얼굴까지 깨끗이 씻어야 하며, 충분한 휴식과 음식의 위생상태도 고려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봄이야? 여름이야? 광주지역 기상 관측 이래 3월 낮 최고 기온인 24.9도를 기록한 19일 광주 충장로 도심을 찾은 여성들이 더위를 쫓으려는 듯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걷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7분  
해질 18시 44분

달돋이 02시 46분  
달질 12시 31분

**춘분(春分)**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주	구름 조금	11/23°C
목포	맑음	10/20°C
여수	흐린뒤 맑음	13/16°C
완도	맑음	12/20°C
구례	구름 조금	10/24°C
해남	맑음	11/21°C
장흥	구름 조금	11/21°C
고흥	흐린뒤 맑음	12/19°C
순천	흐린뒤 맑음	12/21°C
영광	흐린뒤 맑음	10/20°C
진도	맑음	10/20°C
전주	구름 조금	11/22°C
남원	구름 조금	9/23°C
축산도	구름 조금	7/15°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남동	0.5~1.5m	목포 08:49	01:0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남동	1.0~1.5m	여수 05:03	11:38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8/20	9/16	6/14	3/12	1/8	1/11

## ‘통일비 건립’ 모금 논란

광주 한 중학교, 학부모에 모금 안내장 보내

광주 한 중학교에서 교내에 ‘통일비 건립’을 세우겠다고 전체 학부모에게 모금 안내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도 모금 동참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광주시 서구 H중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가칭 통일비(높이 350cm, 폭 130cm·비용 600만원) 건립을 위한 모금 안내장을 전체 학부모에게 보냈다.

이 안내장에는 20일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총회 때 약간의 기금을 준비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도 용돈을 아껴 1천~2천원씩이라도 모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같은 모금 방식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현행법에도 학부모에게 일괄적으로 안내장을 보내 부담을 주는 행위는 금지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장은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건립하는 것이 의미가 클 것 같아 안내장을 보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견치를 봤다”면서도 “일부 반발이 있는만큼 모금을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성취도 오류·부풀리기

“광주·전남에선 없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의 재조사 결과 광주·전남에선 고의적 성적 오류와 성적 부풀리기 등은 없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1천140여개의 초·중·고교에 대해 전면 재

## 함평출신 北 70대 “형제들 보고싶다”

평양방송 출연 가족사·신상 등 소개  
南 형제들 “남북경색에 조심스럽다”

남북관계의 악화로 지난해부터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가운데 북한 대외방송인 평양방송이 19일 함평북도 함주군에서 살고 있는 이산가족 윤형철(76)씨를 출연시켜 그의 가족사를 소개토록 했다.

윤씨는 방송에서 자신은 1933년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에서 농사꾼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당시 가족은 부모와 자신을 포함해 4형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돈이 없어 중퇴했고, 17세 되던 6·25전쟁 때 북한 인민군에 들어가 월북한 뒤 농업대학을 졸업했다며 자신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윤씨는 “우리 형제들이 다 늙도록 언제 한번 마주앉아 보지 못하고 고향방 한번 다시 밟아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꿈을 꾸어도 고향에 가서 이미 세상을 떠났을 부모님과 만나는 꿈, 형제 친척들과 다정히 이야기하는 꿈을 자주 꾸다”고 고향과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냈다.

이에 대해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윤씨의 동생 형도(63)씨는 “형님의 생존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윤씨는 방송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에 있는 윤형철씨의 4형제 중 형도씨와 여동생 형남(74)씨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함평에는 사촌동생이 살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연합뉴스

## 영광서 6·25 전사자 유해 2구 발굴

육군 31사단은 19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학동마을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벌여 2구의 유해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 개토식 이후 발굴에 들어가 이 마을 야산 부근에서 유해 1구를 발굴했다. 17일에는 마을 주민 오모(78)씨의 제보에 따라 처음 발굴된 곳으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발

## 조선대 “임시이사 저지”

결의대회·서명운동  
교과부에 정면 대응

조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 이사 파견 움직임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조선대 정상화 학생추진본부는 19일 학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움직임을 막기 위한 다각적이고 강도높은 대응책을 마련,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조속한 정이사 선임만이 학교 정상화의 선결과제라고 판단해 임시이사 파견 저지 결의대회, 서명운동,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대학 구성원들의 의지를 결집해 교과부 상경 투쟁, 학교 전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대시민 홍보전 등도 꾀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가 임시이사 파견을 강행할 때에는 이사회 정족수 확보, 단식과 삭발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가 지난 2006년 임시이사 선임 해소 대학으로 분류하고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뒤집고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r

생명수를 선물하세요!

그리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끓여 마시거나, 물을 끓여 마시거나, 물을 끓여 마시거나... (text is partially obscured)

2009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무상보조금 60% 신재생에너지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시 전기요금의 60% 이상 절감

내 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그만큼 100만원 받습니다!

설치비용 4,800,000원  
주택용 전기요금에  
합계 103,600원 /월  
월지출 12,070원  
평균 80% 이상  
전기요금 절감

T. 080-7272-7000

COSMOENG | 주: 코스모이엔지